

격려사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모든 만물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면 모두가 하나의 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행하신 무한한 자비심을 따라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이곳이 모든 중생들과 상호연관된 '인드라'의 관계임을 성찰하여 모두가 바라는 불국토의 지구촌을 위해 성심으로 정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승산스님의 가르침은 우리 종단 국제팀의 나침반과 같고 각자의 수행정진을 점검하는 기회이기도 하고,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진정한 세계일화를 일궈내기 위한 결집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수행자의 마음은 하나의 큰 불꽃
불교의 선수행이 일상생활에서 함께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도 크게 유익함

부처님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한 뿌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은 곧 내 아픔이고,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이웃을 평화롭게 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존중 받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존중해야 하고, 내 가족이 보호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남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픔을 나누면 가벼워지고 행복을 나누면 두 배가 됩니다. 내 얼굴인 이웃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어떤 큰 아픔도 이겨내도록 이웃의 손을 함께 잡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 할 만큼 짧은 시간에 부와 번영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성실한 국민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고 쉽 없이 달려 왔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부강한 나라를 세웠으며,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세계가 부러워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없으면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

한의 자존감도 지키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물질이나 권력 앞에 생명의 가치는 땅에 떨어진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윗 사람과 아랫사람이 소통하기 쉬운 나라, 이웃과 이웃이 소통하기 쉬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견과 사상이 서로 다르더라도 잘 살고자 하는 다양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풍부한 물질을 누리고 있음에도 경제불황과 양극화, 끊임없는 분쟁과 자연재해 등 전 지구적인 고통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으로 행복을 찾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지혜이며, 자비로움 마음으로 가득찬 것입니다.

승산스님을 만난 것은 우리와 여러분에게는 큰 행운
승산스님이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과 한국불교가 가진 수행정신을 전 지구촌의 젊은이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